

“저렴한 가격에 건강한 한쌈 어때요”



(6) 정안식육식당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정안식육식당' 내부 모습.

삼겹살은 가족 외식, 직장인 회식, 친구 친목 등 각종 모임에서 가장 사랑 받는 메뉴로 꼽힌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에도 좋고, 때론 술과 함께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안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갯입 위에 잘 구운 고기 한 점과 마늘, 쌈장을 얹어 먹으면 업무에 지친 피곤이 한방에 날아간다.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고기를 배불리 먹고 싶다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정안식육식당이 제격이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힐스테이트 인근 상가에 위치한 정안식육식당(대표 이상문)은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고기를 맛볼 수 있다는 매력에 직장인들의 회식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정안식육식당은 오픈 1년이 갓 넘은 현재 매출이 50%가량 오르는 등 벌써부터 단골 고객층이 두텁다. 정안식육식당의 강점은 유통과정에서 간소하다보니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가격도 삼겹살 기준 1인분에 1만원으로 오픈 때 가격 그대로 받고 있다. 통상 1인분에 1만 2,000원~1만 3,000원을 받는 곳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유통마진 줄여 신선하고 저렴한 고기 '강점' 유향 100일 먹여키운 돼지 '깊은 풍미' 자랑 구이용 한우 최상급 취급 ... 육회양념 인기

이 대표는 “돼지 가격은 야외 나들이가 잦은 여름이 가장 비싸다”면서 “돼지고기 원가가 저렴할 땐 마진을 많이 남기고, 비쌀 땐 조금만 남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평균 단가로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안식육식당에서 판매하는 돼지는 유향을 먹여 키웠다. 점이 색다르다. 현재 유향돼지는 전남지역 8개 농장에서 키우고 있다. 대다수 농가가 통상 60~70일 가량 유향을 먹여 키운다면, 정안식육식당

에서 판매하는 돼지는 유향을 100일을 먹여 키운 해남 농가 돼지만을 고집한다. 유향을 먹여 키운 돼지는 일반돼지보다 불포화지방 함량이 높다. 그렇다보니 담백하고 풍미가 좋으며, 몸의 독소도 제거해 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 이 대표는 “유향을 먹여 키운 돼지와 일반돼지 원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같은 가격이면 손님들 몸에 좋은 유향돼지를 고집해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안식육식당의 또 다른 자랑인 소고기

를 빼 놓을 수 없다. 구이용은 1등급을 취급하지 않는다. 원플러스 이상의 등급만이 이 식당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 이 대표는 “요즘에는 손님들이 한우의 질을 더 잘 알아 본다”면서 “그렇다보니 고기를 고르는 과정을 간간하게 관리하다 보니 납품업체 사장들도 자신이 없으면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정도다”고 귀띔했다. 육회 양념 또한 15년간 정육점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이 대표만의 스타일로 재탄생시켰다. 식육식당을 찾아 생고기를 사가는 손님들에게도 인기인 양념은 무료로 제공된다. 삼겹살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짬짜미도 직접 담근다. 두를 짬짜미의 경우 예약 손님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다. /이나라 기자

‘소상공인페이’ 결제수수료 ‘0%’ 추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상 발표

소상공인의 대표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결제수수료 해결을 위해 혁신기술을 결합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소상공인페이’ 도입이 추진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편결제 피칭대회 겸 우수제품·기술 전시회에 참석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깎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혁신적인 결제수단을 접목해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각종 혁신적 기술을 토대로 ‘소상공인페이’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적 결제수단 도입과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13개 업체가 간편결제 우수기술 및 서비스를 제안했고 8개 업체가 제품·기술 전시회에 참여했다. 우리나라 간편결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카카오페이·토스·케이뱅크 등)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서비스를 개시하는 스타트업기업까지 참여했다. 이들은 QR코드, NFC, 블루투신, 음파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밴(VAN)사나 전자결제대행업(PG)사를 거치지 않고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선보였다. 전문가들은 발표기술들에 대해 카드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업체들에게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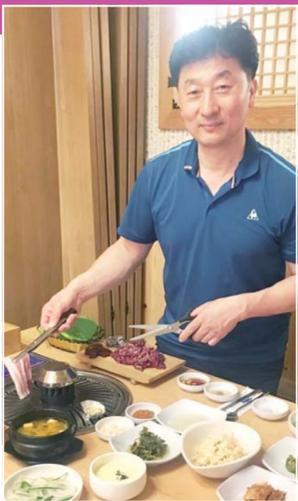
노란우산공제, ‘산이’ ‘꿈이’ 홍보용품 배포



산이와 꿈이 홍보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노란우산공제가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든든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신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용품을 제작·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홍보용품은 노란우산공제를 의미하는 ‘산이’와 소기업·소상공인을 상징하는 ‘꿈이’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된 제품으로 차량용 방향제와 피규어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김한수 노란우산공제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는 5월 25일 재직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며 명실공히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소통을 강화해 더욱 친숙한 제도로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이상문대표 “손님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가게가 목표”



“현재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손님들이 배불리 먹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꾸리고 싶습니다.” 이상문 정안식육식당 대표(49)의 식당 경영 철학이다. 이 대표는 광주시 서구 농성동과 남구 월산동 주택가에서 16년간 정육점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단골고객층이 두텁다. 여기에도 질 좋은 고기만을 취급한다는 이 대표의 경영 소신을 잘 아는 손님들은 식육식당을 한번 운영해보는 것을 어떻게냐는 이야기를 건넸다고 한다. 이 대표는 “고객의 추천도 있었지만 식당을 창업하는 것이 꿈이었다”면서 “마침 입점한 건물 비워줘야 했고, 새롭게 계약한 상가입주 5개월 전에 정육점이 아닌 식

육식당을 차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식당을 개업한 이 대표는 두터운 고객층에다, 한번 가게를 찾으면 자주찾는 손님들로 인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더구나 보성에서 부모님이 키운 신선한 채소와 소스하나부터 짬짜미까지 손수 담근 이 대표의 정성은 손님들의 입맛과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이 대표는 “우리 가게는 가족들이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며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스부터 반찬까지 꾸준히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당을 개업하기 전까지 이 대표의 삶은 열정적이었다. 전남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 학교를 다니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며 공부했던 학생이었지만 졸업과 맞물리며 터져버린 IMF로 인해 취업난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 대표는 “IMF로 인해 취직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쉬지 않았다”면서 “노가다부터 지역마트까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다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렇게 일하며 모은 돈으로 택시를 구입했고 정육점을 차리는 등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며 밝게 웃었다. 이 대표는 “손님들이 와서 배불리 먹고 잘 먹고 간다는 인사 한마디가 기분이 좋다”면서 “많이 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픈 때 가격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게를 유지해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나라 기자

소상공인 사업재기자 힐링캠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사업재기에 성공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의욕 고취와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재기자 힐링캠프’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2일~23일, 23일~24일까지 각각 2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사업 재기자 특화형 프로그램으로 ‘업의 의미와 가치 찾기’ ‘일류기업으로 가는 길’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다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전 명예홍보대사인 방송인 김학래씨(차이나리전 대표)의 ‘성공과 실패 이유가 있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명상 및 레크레이션, 친교활동 등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과 재충전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다. 힐링캠프는 사업재기에 성공한 소기업·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가족경영인 경우 가족도 동반참가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GRAND OPEN

1040세대 (예정) 초대형 단지

3.3㎡당 700만원대 합리적 금액

동천산책로 1분 거리

중도금 무이자

balcony 확장비 무상

동호수 선착순 지정

문의 061) 726-0600

※상기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